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에 힘쓰자



박 태 진
(국립종축원 대전지원장)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그동안 호황과 불황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비교적 호황기가 길게 지속됨으로서 많은 신장을 가져왔다.

이와같이 양돈산업이 성장발전한 것은 그동안 국민소득의 향상과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 육류수요가 증가하였고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과 양돈업계의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많은 물량의 공산품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우리도 상대방의 상품을 살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견지할 때 우리나라 공산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축산선진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수입개방요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대두되어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88년도까지는 전공산품의 95% 수준까지 개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수입개방계획이며, 그 나머지 5%는 대부분이 농축산물이다.

그러나 돼지고기통조림과 가금고기통조림, 쏘세이지와 유사한 제조식품류는 87년초에 수입개방한다고 지난 연말에 예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90년대초에는 돼지고기에 대하여도 국제시장의 문호를 거의 열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90년대초까지는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국제경쟁력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수준까지 인하되어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생산성을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보다 생산성이 높아 보다 값싼 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10~15% 정도인 18만여톤의 돼지고기를 여러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대만은 우리나라와 여러가지 여건이 비슷하여 사료곡물을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종돈도 여러가지 품종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매년 돼지고기 생산량의 약 8%에 해당하는 35천톤정도를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까지는 연간 약 5천톤정도의 돼지고기를 주로 일본에 수출하여 왔으나 80년대에 와서는 국내수요와

수출에 대한 채산성 문제로 거의 수출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웃나라에 비하여 생산비가 높아 국제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을 국제수준까지 높이기 위하여서는 개선에 힘써야 할 분야가 많이 있으나 먼저 양돈산업의 기초가 되는 종돈의 개량조치가 개선되어야 하겠다.

종돈의 개량은 경제능력이 우수한 종돈의 확보로 인하여 적은 생산비를 들여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기 위한 양돈산업의 경영상 불요불가결한 요건이다. 아울러 경제성이 높은 육돈을 생산하려면 우수한 종돈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육돈생산은 우수 종돈의 교잡법을 이용한 것으로 종돈이 우수할 수록 그 교잡효과도 큰 것이다.

종돈의 개량조치를 크게 나누면 종돈개량, 종돈증식, 육돈생산, 비육으로 나눌 수 있다. 종돈개량은 국가기관과 기업종돈장에서 분담하고 검정에 의한 개량연구로 산자검정, 산육검정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종돈을 생산하여 지정종돈장등 종돈증식 농장에 보급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종돈과 냉동정액등 우수한 유전인자의 도입은 종돈개량부서에서만 도입하여 우수한 기초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종돈증식농장은 산자검정을 실시하여 우수한 종돈을 생산, 등록돈을 확보증식하고 육돈용 자돈생산에 필요한 모돈용 번식돈을 공급하는 번식종돈농장 또는 지정종돈장으로 육성하여야 하겠다.

육돈생산·비육농장에서는 우수 종돈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우량교배에 의하

여 교잡육돈을 생산하면 능력이 우수한 육돈이 생산될 것이다.

그리고 종돈 유통의 원활과 확대보급을 위하여 종돈생산농장이나 지정된 장소에 종돈매각시장을 개설하여 매월 일정한 일자에 종돈이 필요한 농장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모름지기 어떠한 산업이든 살아 남기 위하여서는 남보다 앞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육종개량사업의 강화, 생산기술 및 위생관리기술의 향상, 생산지도체계와 기술자의 양성강화, 양돈경영의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전양돈인의 슬기를 모아 국제경쟁력 향상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